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2007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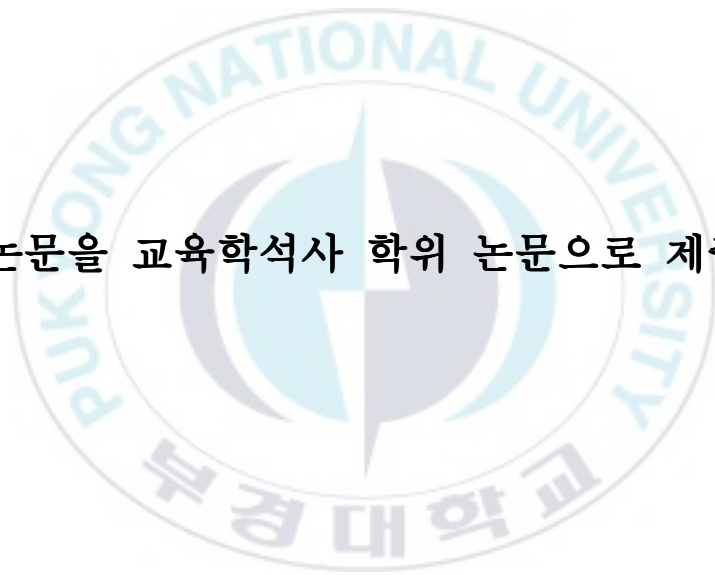
체육교육전공

문 성 준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해양스포츠 개발활동에 관한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문 성 준

문성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08월 31일



주심 행정학박사 권혁동 (인)

위원 이학박사 지삼엽 (인)

위원 철학박사 문선호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해양스포츠	5
가. 해양스포츠의 정의	5
나.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의 교육적 가치	17
다. 해양스포츠 종목별 교육 개요	23
2. 계발활동	27
가. 계발활동의 필요성 및 목적	27
나. 계발활동의 개념	28
다. 계발활동의 교육적 의의	28
라. 계발활동의 부서	33

III. 연구 방법.....34

1. 연구 대상.....34
2. 연구 설계.....35
3. 조사 도구.....36
 - 가. 설문지의 구성.....36
 - 나.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37
3. 조사 절차.....38
4. 자료 처리.....38

IV. 결과 및 논의.....39

1. 결과39
 - 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39
 - 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39
 - 다. 교사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43
 - 라. 운영체제.....46
 - 마. 교사 준비도.....49
 - 바. 참여 장애요인.....51
2. 논의55
 - 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55
 - 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55
 - 다. 교사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56
 - 라. 운영체제.....56
 - 마. 교사 준비도.....58
 - 바. 참여 장애요인.....59

V. 결론 및 제언.....61

1. 결론61

2. 제언63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4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36
표 3.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계수.....	37
표 4. 교육적 가치 1 : 적성개발.....	40
표 5. 교육적 가치 2 : 창의성 발달.....	40
표 6. 교육적 가치 3 : 협동심 발달.....	41
표 7. 교육적 가치 4 : 인간관계 형성.....	41
표 8. 교육적 가치 5 : 여가 선풍.....	42
표 9. 교육적 가치 6 : 심신의 건강.....	42
표 10. 교육적 가치 7 : 정서 발달.....	43
표 11. 성별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T-test).....	44
표 12. 연령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일원변량분석).....	45
표 13.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일원변량분석).....	46
표 14.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간운영.....	47
표 15.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비용.....	47
표 16.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인원.....	48
표 17.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자.....	49
표 18.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교사로 참여의향.....	49
표 19.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보유유무.....	50

표 20.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의향.....	50
표 21. 해양스포츠 지도자 연수 참여의향.....	51
표 22. 참여 장애요인1 : 안전사고.....	52
표 23. 참여 장애요인2 : 참가비용.....	52
표 24. 참여 장애요인3 : 지역사회시설의 부족.....	53
표 25. 참여 장애요인4 : 프로그램의 부족.....	54
표 26. 참여 장애요인5 : 계절 및 날씨의 영향.....	54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변인.....	35
-----------------	----



Th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t a middle school in
Busan on the Developmental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Moon sung j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arine sports development activities in physical education. The goal of the study is to provide some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s.

The initial step was to evaluate the teachers' degrees of acknowledgement of the educational values that these programs offer. Next, it was necessary to find out if the teachers' support of "this idea" was linked to background variations. The next steps wer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ir knowledge concerning the operating systems for marine sport development activities as well as their ideas about the obstacles that might hinder these systems. Lastly, information was gathered about how well teachers feel prepared to teach these programs.

In this stud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collect 344 valid samples from teachers employed in the district of the Haeundae Education office in Busan. The survey tool used in the

study was a questionnaire which of composition propriety and reliability were proved and, the data were analysed through frequency study, T-test, ANOVA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achieved using the above study method and procedure. First, teachers do in fact recognize the benefits of marine sport development activity programs in the field of education. Secondly, their degree of acknowledgement of these values is not affected by their backgrou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teachers consider the proper operating system for carrying out such programs to be as follows; To adequately cover a single marine sport topic, the student should study it for 4 consecutive weeks to total 4 hours of classtime. The recommended tuition per one-hour class should be 2,500won. Class enrollment should not exceed 20 students per grade level; and class should be guided in a joint effort between the regular teacher and a trained expert in the particular topic. Fourth, the teachers think that the participation obstacles of the operating system are safety accidents, the expenses, the lack of programs and equipment in the region, and weather. Fifth, the teachers' preparation on the marine sports development activities was revealed as follows; the ratio of teachers who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related to the marine sports is as low as 5.2 percent. The ratio of teachers who are willing to obtain the qualification was also low at the rate of 29.1 percent. Also, the ratio of teachers who have intentions to teach the students was relatively low at the ratio of 35.5 percent compared with the rate of 62.8 percent of teachers that have no mind to lead

the programs. Finally, teachers who would take part in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marine sports development activities was relatively low at the rate of 44.5 percent compared with the rate of 53.8 percent of teachers that have no mind to take part in the training program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윤정일, 허 형, 이성호, 이용남, 박철홍, 박인우, 2006).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과 위주의 학습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류연수, 2002).

더욱이 이어령은 21세기는 좌·우뇌 모두 쓰는 ‘디지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에 있어 지적학습과 함께 현장학습의 병행을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 위에 따뜻함, 감성 등 몸의 언어를 덧대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창의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 2007).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이다. 디지털의 주체가 과학이라면, 아날로그의 주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교육의 장에 대입시켜 보면, 디지털은 정규교과목이고, 아날로그는 특기·적성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창조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적을 정해 실천하는 가운데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느끼는 현장학습이 지적학습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과 함께 교과활동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이외도 특별활

동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류연수, 전제서).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교육부, 1997).

이 중 계발활동(啓發活動)은 서로 같은 취미나 적성, 그리고 각종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게 하려는 의도로 설정된 영역이다(교육부, 1999).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에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1997).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활동을 통하여 획일성을 지양하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1997).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계발활동은 전국을 망라 엇비슷한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발활동은 찾아 볼 수 없는 등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은 비교우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해양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모험심 배양과 함께 심신연마의 계발활동 바다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수정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실제로 2000년 7월 경북 청도군 금천 중·고등학교 학생 187명을 시작으로 2007년 5월 현재까지 전국각지의 초·중·고 수학여행(체험학습)단이 ‘(사)한국해양스포츠회’가 운영하는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을 찾고 있다(부산일보). 그렇지만 정작 부산지역 각급 학교의 계발활동은 해양스포츠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등 전국적 현상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체제 내 제문제

들의 유기적 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3요소 중의 하나인 교사를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이 최종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가시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교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라는 최의창(2005)의 주장처럼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은 교사들의 바람직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특가·적성교육으로서의 계발활동 선행연구는 이순길(1995), 이재숙(1996), 윤현희(1997), 김옥소(1997), 김기수(2000), 서수옥(200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효율적인 계발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연구영역의 일반성으로 인하여 해양스포츠 계발활동만의 특수성을 내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발활동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나.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다. 교사들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라.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마. 교사들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위한 준비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바.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가.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청 산하의 중학교 교사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한 관계로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나. 교사들이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였는가의 문제로 설문지 조사법이 갖고 있는 성실성 여부의 일반적인 약점은 극복하지 못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양스포츠

가. 해양스포츠의 정의

해양스포츠(Marine Sports)는 " 바다 · 강 · 호소(湖沼: 인공호 · 자연호 · 석호 등)에서 동력과 무동력의 각종 장비(보트)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취미적, 또는 체계적(제도화)·비체계적(비제도화)인 스포츠형 해양스포츠와 레저형 해양스포츠, 그리고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을 모두 포괄·함의(含意)하는 광의적 개념" 이라고 정의한다.

사전(辭典)에서 말하고 있는 ‘해양’ 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넓고 큰 바다’ 이다. 그러나 앞의 개념 정의에서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스포츠’ 에서의 ‘해양’ 의 공간적 범위는 바다의 경우, 인간의 문화가 미치는 그 어디쯤의 공간인 가운데 해수(海水)든 담수(淡水)든 가릴 것 없이 수심 70cm내외의 물[水]이 있는 곳을 뜻한다. 바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강과 호소도 해양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차 제기될 수 있다.

바다의 수증기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雨)가 되어 바다에 떨어지면 해수가 되는 것이며, 육지에 떨어지면 담수가 된다. 특히 담

수는 강을 통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든다. 그렇게 흘러든 담수가 해수가 되어 또다시 수증기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고 볼 때, 담수 해수는 물이 생성되는 그 과정 중에 단지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순환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물 생성의 하위 체계인 담수, 해수에 따른 각각의 개념을 성립시켜 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만인의 문화인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연구자는 ‘수상레저스포츠 용품산업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2004)’에서 ‘해양은 해상과 해중을 내포하고 있으나 해수만을 의미한다. 또한 수상은 물 위로 제한되나 내수면과 해수면을 포함한다. 그래서 내수면과 해수면 위에서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을 다루는 정확한 용어는 ’수상레저스포츠 ‘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체육에 대한 개념이 심신일원론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또 개념 정립의 일반적 관행인 큰 개념 지향 추세, 게다가 개념은 항상 그 개념 밖을 전제하고 있는 개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잠시 머무는 일시성을 비롯하여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분야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포츠, 해양레저, 바다스포츠, 워터스포츠, 수상스포츠, 수상레포츠, 수상레저스포츠, 수상레저 등 약 9개 정도로 난립, 중구난방으로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에 큰 혼선을 빚고 있는 현상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엄밀하고 철저한 작업을 거친 개념이라도 현실적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명칭 검토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립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로 하나 되게 통일시키는 작업

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육 개념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식 기준(심신이원론에서 벗어나 심신일원론을 적극 지지하는 추세),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이미 법제화 과정에서 분야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체육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정책 대상의 범위를 참작하는 한편, 이 분야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약 9개 정도 난립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혼선을 빚게 하고 있고, 또 활동 공간의 최적성 등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큰(바다) 개념에 작은(물) 개념을 수렴·함의시키고, 또 활동 공간의 최적성 고려 등을 중심으로 광의적·포괄적 의미의 큰 틀[그릇]을 갖는 가운데 그 그릇(내용)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 대상 범위인 스포츠형 해양스포츠, 레저형 해양스포츠,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해양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모두 담아[함의]내는 한편, 그것도 가능하다면 짧은 용어로 개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체육(외국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체육 분야에 해당되는 ‘스포츠’라는 용어를 행정 용어로서 그 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체육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대한 정의는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법률에서 사용된 체육정책 대상의 범위는 교육으로서의 체육,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등 광의적으로 정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백번 양보하여 과거 물의 시각으로 본 이 분야 개념이었던 ‘수상스포츠’라면 그래도 진부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수상레저스포츠’라는 조어(造語)차원의 개념에는 토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더욱이 원칙적으로는 수상스포츠라는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체육 검정교과서에서 조차 지금껏 사용되고는 있다. 이는 앞 시대에 유럽, 미국 등 스포츠선진국들이 강과 호소 등 내수면을 활동 장으로 하는 이 분야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성립시킨 문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지금껏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보다 앞서 대학에 이 분야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과거에 비해 스포츠 환경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연구자가 말하는 ‘수상레저스포츠’를 비롯하여 중등학교 체육 검정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는 ‘수상스포츠’, 또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과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라는 개념들은 편의적으로 조합한 조어이거나, 또는 개념 정립의 일반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고, 또 활동 공간의 최적성과 장(Field)의 크기를 비롯하여 시대 발전에 따른 수중에서 이뤄지는 스쿠터, 스포츠잠수 등 새로운 종목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해양스포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수면을 놓고 체육 이외의 분야에서는 수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있다면 강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형성한 ‘수상가옥’ 정도다.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개념에서 보아도 강과 물 간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수변·강변’, 그리고 호소와 물 간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호반’이라 하고, 해수와 물 간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해변’이라 각각 말한다. 게다가 바닷물과 민(강)물이 섞인 담해수와 물 간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기수변(汽水邊)’이다. 그러나 ‘개념의 속성’은 항상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현실 앞에 너무 쉽게 무력해진다는 개념 그 자체의 속성(한계)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진부한, 또는 해수와 담수를 중심으로 활동 장별로 구분하는 등 중구난방으로 난맥상을 계속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다. 이제 개념을 놓고 혼란을 빚는 악순환의 고리는 과감하게 끊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도 해양스포츠는 수상레저, 수상레저스포츠, 수상레포츠, 수상스포츠, 바다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 해양레포츠 등 약 9개 정도로 제 각각 이었고, 그런 결과로 이를 접하게 되는 시민들과 정책당국의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헷갈린다는 반응들이었다. 더욱이 이들 개념에 대해 지금껏 학계에서조차 진지하게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 최근 체육관련 각종 학회지에 투고되고 있는 논문제목들이 그 실상을 웅변해준다. 있다면 앞 시대에 외국에서 성립시킨 개념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는 인접 관광학 분야에서 외국 관광학계의 문헌에서 사용된 개념을 여과 없이 마구 인용해 왔던 것이 체육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일반화되었을 뿐이다. 한강과 청평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은 수상스포츠, 또는 수상레저, 수상레포츠, 수상레저스포츠이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즐기는 윈드서핑을 해양레포츠, 해양레저, 바다스포츠라고 각각 달리 말한다면 이런 현상이야말로 코미디의 압권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계속 지켜만 볼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관광분야에서 외국의 경우를 어설픔게 벤치마킹하여 표현한 것이 사회 일반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 인식에 큰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 개념 정립과 학문적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학의 해양스포츠 전공학과에서는 이미 박사급 연구자가 양성되고 있고, 더욱이 체육 분야 학문적 주요 콘텐츠(Content)가 되어 있는 지금, 해양스포츠 연구자나 경기자, 그리고 전공 학자들은 지금

것 시민 인식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제 각각의 개념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자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대 발전을 중심으로 하나로 하나 되게 통일시키는 통일화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개념 정립에 있어 동일한 분야를 놓고 길항(拮抗)하는 어떤 개념과 개념 간에 명쾌한 구분 짓기가 어려울 때는 큰 개념에 작은 개념이 흡수·통합·은폐되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용어 개념 정립 작업에 있어 일종의 관행(慣行)이기도 하다. 해양스포츠 활동 공간의 크기나 운동의 최적성 측면에서 보면, 바다가 지구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해양스포츠 활동 최적의 공간이라는 데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깊이 70cm 내외의 물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강과 호소도 차선의 훌륭한 활동 공간이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각각의 해양스포츠 개념에 대한 시민 인식의 혼선 예방과 활동의 최적성, 그리고 활동공간의 규모 측면만 놓고 봐도 내수면인 강과 호소는 해양이라는 큰 개념에 수렴되어야 하는 가운데 은폐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해수면을 놓고 체육 이외의 분야에서는 수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않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수상스포츠라고 해도 엘리트체육과 내수면 중심으로 각각 정립된 앞 시대 개념이라는 굴레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게다가 운동이 만들어진 의도나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한 운동문화 분류에 의하면, 스포츠형 해양스포츠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상대와 겨루는 기능스포츠이고, 또 레저형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의 도전, 혹은 자연에 순응하거나 자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스포츠이기도 하다(지삼업, 2004). 이를테면 해양스포츠는 한 수레의 두 바퀴인 기능스포츠(스포츠형 해양스포츠)와 극복스포츠

(레저형 해양스포츠)라는 양면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또는 한쪽 얼굴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개념을 비약시키는 ‘환원주의(還元主義)’ 입장에서 스포츠형(기능스포츠) 해양스포츠만을 고려하여 이를 ‘해양스포츠’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희박하지만, 레저형(극복스포츠) 해양스포츠만을 염두에 두고 해양레저, 해양레포츠 혹은 해양레저스포츠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괴테는 “최고의 표현은 그것이 현실성과 경합할 때이다”라고는 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같이 서로 엮이는 영역, 즉 맥락은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배타적이거나 또는 정언적 명제로서의 이분법은 분명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도 스포츠라는 용어 개념을 챔피언(엘리트)스포츠를 대변하는 보통명사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꼭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엘리트스포츠, 생활스포츠라고 각각 말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한체육회 역시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암벽타기’를 채택한 가운데 2004년 11월에 검토된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앞으로 레저형 생활체육단체의 선수도 전국체전에 출전시키는 방안이 채택된 사실 등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아시아 경기대회에 서양 바둑인 체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5월 16일 대한체육회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바둑협회의 경기단체 준가맹을 정식 승인함으로써 바둑이 전국체전정식종목이 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체스나 바둑 등 두뇌경기를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바둑이 무슨 스포츠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이가 적잖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를 두뇌가 아닌 몸으로 하는 운동문화라고 보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이런 관념(체육철학)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몸과 마음을 떼어놓고 보는 심신이원론(Dualism)에서 벗어나 ‘마음은 몸의 생물적 기관의 작용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심리학, 인지과학적 관점을 토대로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즉 정신은 신체기관을 움직이고 또 반대로 신체기관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뇌(Brain: 마음)에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등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심신일원론에서 보면, 몸의 스포츠든 두뇌스포츠이든 모두 광의의 스포츠 개념을 구성하는 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결국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최근의 이론이 체육 분야에 던지는 메시지의 파장은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의사는 인간의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학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각 분야의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하는 신체의 국소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의학 기술의 발달, 의학 분야의 세분화는 의사를 마치 조립공장의 조립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환자 치료 방법은 사람을 심신이원론으로 보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반대로 심신일원론은 환자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그의 병 치료는 인간적으로 해야 함을 역설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대할 때 치료 효과가 더 빨랐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정신신체질병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이 병은 바로 심신일원론을 옹호하는 대표적 병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가정에서 불화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암, 그리고 당뇨병에 많이 노출된다

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은 약물치료만 가지고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병은 정신과적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궤양, 습진, 피부종양, 기타 심장병은 정신적 질환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신체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오는 수가 있다. 이러한 증상 역시 정신신체질병이고 심신일원론을 입증하는 예이다(이정모, 2003).

마찬가지 논리로 스포츠 개념 역시 심신일원론 입장에서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제 체육, 또는 스포츠는 몸의 스포츠문화와 두뇌 스포츠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통의 스포츠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아 간다면, 사이버에서 이뤄지는 e-스포츠도 두뇌스포츠문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스포츠문화 카테고리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편, 몸은 물질이며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또 마음은 물질을 넘어서는 실체로써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으며, 게다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 마음의 다른 한 실체인 영혼(靈魂)이 몸을 떠나서 우주에 별개의 실체로 남는다고 믿는 심신이원론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떻게 비물질적인 마음이 물질인 몸에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껏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과학적으로는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보편적 인식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마음과 몸의 관계(Mind-Body Problem)는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던져 온 물음이다. 이 문제가 희랍시대를 중심으로 심신이원론과 심신일원론으로 체계화되고, 또 17세기 이후에는 다시 마음과 두

뇌와의 관계의 문제로 이슈화되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뇌가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체육, 또는 스포츠철학은 지금껏 심신이원론에 토대를 두고 몸의 스포츠문화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몸의 스포츠문화와 두뇌스포츠문화를 통으로 아우르는 심신일원론 쪽에 무게[준거]를 두면서 체육, 또는 스포츠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봐야 한다.

아무튼 어디까지를 스포츠로 볼 것인가를 규정짓는 체육철학의 이론적 열개[準據]가 심신이원론 중심에서 최근 통의 스포츠문화인 심신일원론으로 바뀌는 시대에 환원주의에 의한 스포츠형과 레저형, 그리고 활동 장에 따른 내수면(수상스포츠·수상레저스포츠)과 해수면(해양레포츠·해양레저스포츠·해양레저)의 구분을 비롯하여 앞 시대의 개념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념이 이어져 있는 연관과 함께 서로 섞이는 영역, 그리고 활동 공간의 규모와 최적성, 특히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대 발전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하나로 하나 되게 통일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체육(스포츠)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전통적인 체육(교육으로서의 체육) 이외에도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하는 등 총체적으로 ‘맥락주의(脈絡主義)’를 취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결국 한번 설정된 개념은 다른 개념적 가능성을 갈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 정의된 해양스포츠의 개념은,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꼬투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심신일원론을 옹호하는 맥락주의적·광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물과 관련된 스포츠를 모두 수상스포츠(aquatic sports), 또는 워터스포츠(water sports), 마린스포츠(Marine sports)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물과 관련된 생활체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장[실기]활동이 선호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는 지금껏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역시 검정교과서에서조차 지금껏 외국과 마찬가지로 수상스포츠(aquatic sports)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삼업, 1999). 그러나 ‘수상(水上)스포츠’라는 개념이 성립된 시기는 엘리트스포츠가 흥미하고 있었던 가운데 바다를 체육의 장으로 온전히 인식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잠수, 스쿠터(scooter)와 같은 수중에서 이뤄지는 활동, 그리고 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카이트 서핑 등 바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목들이 속속 개발되어 스포츠로서 선호되기 훨씬 앞서 성립된 개념이라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앞 시대의 개념임이 확연해 진다할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수중에서 이뤄진 잠수는 주로 산업적·군사적·과학적 활동이 주류를 이뤘다는 것이다(차주홍, 1991).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국에서 지금껏 앞 시대의 개념인 ‘수상스포츠’라는 용어를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는 이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문화지체 현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문화 사대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편, 워터스포츠의 개념에 대해 일본 큐슈지역 가고시마에 위치한 국립 가노야(KANOYA)체육대학 해양스포츠센터 실무책임자 코이치 키하시 교수는 부산을 방문(2005. 2. 7)한 기회에 필자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사실이 있다. “일본의 해양스포츠는 미국으로부터 ‘워터스포츠’라는 개념으로 첫 소개되었고, 그 워터스포츠라는 개념 속에는 '바다스포츠(marine sports)'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지 않느

냐”고 반문한다. 그는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수변(강·호소)활동으로서의 수상스포츠, 또는 워터스포츠, 해변활동으로서의 해양스포츠라고 구분하여 이해하여왔으나 최근에는 수변활동도 해변활동 또는 해양성 활동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추세”라고도 했다. 그의 생각과 전언(傳言)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밝힌 해양스포츠 개념에 대한 필자의 일관된 주장이 국제적으로 상당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 되어 이 분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한번 설정된 개념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소’와 ‘논쟁의 상황’을 제공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하나의 개념으로 당당히 성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변인 것이 아니라 대화와 논쟁을 위한 화두 제공을 통해 다른 개념 성립의 길을 터놓은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개념은 영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해서도 안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한다. 결국 ‘수상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워터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포츠’, ‘바다스포츠’라는 각각의 개념이 그때 그 시점에서 설득력을 갖는 등 일시적 운명이었다면, 게다가 체육 철학적으로는 심신일원론적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해양스포츠’라는 맥락적·광의적 개념도 항상 ‘오늘날의 개념 밖’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운명에 놓일 터이다.

아무튼 알아야 사랑한다고 한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 안다는 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개념은 사고와 행동을 가두는 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름부터 제대로 부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지삼업, 2006).

나.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의 교육적 가치

(1) 놀이정신과 창조정신

해양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다지는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기회를 갖게 되어 정서에 풍부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침 물안개가 끼는 바다에 떠있는 보우트, 장관을 이루는 일출, 수평선을 진홍색으로 물들이면서 그 모습을 서서히 감추는 낙조 등 사계 모두 저마다 달리하여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등 육체와 정신에 높은 정화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잠수의 경우, 다양한 수중생태계 이해를 통해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등 학습에 의한 것보다는 정서가 훨씬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특히 21세기는 창조성 풍부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국가·사회적 또는 인류 전체로서도 중요 과제이다. 놀이는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놀이는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며 재창조라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 학설이다. 이 놀이는 취미에 의해서 동력을 얻으며 취미가 놀이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취미는 사람들의 열굴만큼이나 다양하다. 동시에 취미는 삶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여백이요, 탄력을 주는 메신저이다. 남들이 보기에겐 저런 짓을 왜 할까 싶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기에 아무개의 취미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압축해서 한눈에 보여 준다고 하지 않는가.

현대인은 산업사회 문명의 최후인 후기산업사회 세대이고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 문명의 첫 세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은 더 좋은

것과 동의어로 이해되지 않는다. 평판이 실력이나 능력 이상의 덕목으로 평가되는 사회인 것이다. 특히 프롬(Erich Fromm)이 ‘희망의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테크놀로지를 재평가 하고 재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소이도 여기에 있다. 매슬로우(Abraham Maslow) 역시 ‘동기와 인간성격’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욕망충족을 목적으로 시작된 과학도 가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놀이는 인간적인 요소가 짙은 것이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로 현대인은 아는 것을 덕으로 승화시켜줄 바람직한 취미생활을 모색하여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는 발랄한 삶을 갈망하게 되는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투쟁적 경기보다 놀이적인 스포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개발이 선진국에서 더욱 빛을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동기와 인간성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획득하고, 마음공부도 단단히 할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놀이의 축도인 해양스포츠를 취미화의 단계까지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은 곱돌냄비같이 미래지향적인 감내를 못하고 도갓집 강아지처럼 남의 눈치나 보고 그 때 그 때 영합하고 사는 현실반응적인 즉흥에 멎들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조지 오웰’은 현대 인간이 지식의 포화로 머리는 커지고 행동의 약화로 수족은 새다리처럼 가늘어지며 눈치만 늘어 부엉이 눈에 뼀목으로 퇴화해 간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개체로서의 독립적인 양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사람은 잘 살 줄을 알아야 하듯이 잘 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잘 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재창조를 위한 반성과 모색과 탐구의 기회를 아깝

게 놓치고 만다. 산다는 것은 불여의한 것을 가능한 세계로 바꾸는 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를 반성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의 취미화에서 그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무엇이 곧 해양스포츠를 통해 창조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해양스포츠의 취미화와 창조정신의 함양은 서로 잇대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신생해양국가 한국에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은 날로 그 뜻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국민복지 구현에 크게 공헌할 사회교육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건강과 정서교육으로도 그 의의를 결코 폄하할 수 없을 것이다.

(2) 인격 도야

생활환경에서 자연을 잃게 되면 잃게 된 정도 만큼 자연에서의 활동을 갈망하게 된다고 한다. 자연과 대화하면서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잠자는 인간의 본성을 흔들어 깨우고 또 몸과 마음을 모두 정화·재생시켜 주는 등 인간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간 소외감을 비롯하여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등 이래저래 심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점점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까지의 건강 개념인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건강에다 영적인 건강을 새로운 건강요소로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우리 국민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31.4%에 이른

다’ 고 밝힌바 있어 오늘날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개인의 심신관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할 것이다.

해양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다지는 가운데 자연 환경에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과 겨루는 가운데 위기에 대처하면서 느끼는 긴장감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등 겸허한 자기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해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활동 등이 그 매력이다.

일본 ‘오오에 세이지’ 는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 조건으로서 원시적 생활력, 본능적 사회성, 창조적 이성 등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바다수영을 또 과학자나 예술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잠시나마 직업의식을 완전히 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서 요트, 스포츠 잠수, 윈드서핑 등을 꼽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처럼 해양스포츠 활동은 앞으로 더욱 더 생활화되면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지구촌 가족의 끝없는 존속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사회성의 발달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시중심의 학력 편중주의는 아동들로 하여금 놀이 시간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고 있고 또 도시화에 따른 인구과밀은 놀이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 여기에다 자동차 보급의 급증은 절대 운동량 확보마저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가 심화·발전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동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교우하고 건강을 다질 시간

적·공간적 조건이 열악한 탓에 삶의 풍요로움과 자기성장·발달에 필요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은 「청소년 해양스포츠 체험 수련원」이 되고 또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교우가 가능하여 자기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성 함양에 유효하다. ‘스토랑’은 집단 활동의 지도에 의해 발달적 가치, 진단적 가치, 치료적 가치, 학교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가치 등이 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발달적 가치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성 및 정서의 발달과 태도·흥미·능력 및 사회적 규율 등을 향상시켜 준다. 진단적 가치는 개인의 관계를 비롯하여 보다 좋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해양스포츠 활동은 성원에게 자기 평가·자기 발견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치료적 가치는 타인과 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계기를 만드는 것, 새로운 습관의 형태를 발달시키는 것, 점차 독립심을 갖는 것, 특별한 재능을 갖도록 해주는 것 등 환경 요법적 가치도 가진다.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는 개인 능력의 최상의 발달은 그 자체로도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지만 집단 활동에는 그 주된 목표를 학교나 지역 사회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요청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이기주의와 정신적으로 나약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 활동은 생활권에서 떠나 집단과 함께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만큼 앞으로 충실한 집단 해양스포츠 체험교육 기회를 더 많이 보급·확충해 나가는 것이 개인 이기주의 극복 등 현대의 청소년 위기를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생태보호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 확립

어릴 적부터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자연 현상과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강과 바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카약, 해양 레프팅, 아웃트리거 카누, 윈드서핑 등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도 자연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의 냉엄함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조차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자연을 이해하고, 또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건강증진 효과와 함께 해양스포츠 체험 활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을 통하여 강과 바다가 어떻게 오염되고 또 수질환경이 얼마만큼 악화되고 있는가를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탁상공론으로 말하기보다 실제의 교육에 의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즐기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그 첫걸음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생물과 공존해 간다는 철학을 확립하는 등 21세기 인류의 화두인 청정한 수질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 과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에 거는 기대가 된다.

(5) 해양스포츠 진흥을 통한 새로운 스포츠문화 창조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인 지금, 한국은 2010년 정착을 목표로 주 5일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인의 여가 시간이 증대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경제적 여유를 비롯하여 물질적 풍요를 즐기고 있는 만큼 해양스포츠 활동 동호인 역시 사회변동에 따라 더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5,000-20,000달러 사회가 되면 해양스포츠가 선호되는 경향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앞으로 그 어떤 사회가 되든 해양스포츠는 자유방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호인 스스로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해양경찰 역시 동호인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각종 사회성 개발과 함께 안전성 확보, 그리고 바다친화 기회 확대 등을 통한 한국 스포츠의 물과 해양 간 균형발전책 모색 등 미래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창조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다. 해양스포츠 종목별 교육 개요

(1) 해양스포츠 안전교육

해양스포츠 참가자 전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유사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며 구조수영, 인공호흡, 응급처치 등을 순차적으로 지도한다.

(2) 해양 레프팅

가장 기본적인 패들과 고무보트만으로 일정한 방향을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기초기술을 습득시키며, 동료들과의 일체된 동작과 호흡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동심 유발에 지도의 중점을 둔다.

(3) 바나나보트

모타보트에 견인줄을 연결하여 바나나보트를 끌 수 있게 하여 스피드를 즐기며, 5명이 1개조로 되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게끔 하는 종목이다. 바다 위를 시속 60-70km로 달리며 보트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동안 승선한 동료들은 서로 일치된 한마음으로 몸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결력과 협동심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대담성이 필요한 종목이다.

(4) 모터보트

-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의 기능과 스크류의 역할, 그리고 기본 항해지식을 학습한다.
- 탁 트인 광안리, 해운대 앞바다를 질주하며 느낄 수 있는 쾌감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입시에 대한 부담을 단번에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가장 기초적인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도록 하여 바다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해양도시 부산의 아름다움을 체험시켜 향토애를 고양시킨다.

(5) 수상오토바이

- 제트 엔진에 대한 기능을 학습시킨다.
- 해외에서 널리 해양스포츠의 필수종목으로 선택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를 직접 조작 및 시승케 함으로서 기기적인 첨단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하고 강한 추진력에 의한 속도를 체험함으로서 동력 해양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쾌감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6) 해양카누·카약

◦해양카누·카약은 계곡에 급류돌파, 파도넘기 등 다이나믹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해양스포츠로서, 이를 해양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장거리를 레이스 하계끔 변형시킨 스포츠이다.

◦높은 파도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어떠한 기상과 높은 파도라고 이겨내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과 우수한 신체적 조건을 구비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훈련 및 숙달 과정을 체험케 한다.

(7) 윈드서핑

◦보트로 파도를 타는 서핑과 뜻을 달아 바람을 이용하여 물살을 헤치는 요트의 장점만을 따서 만든 것으로서 바람의 원리를 이용해 전진 및 방향 전환 등의 기술을 시범 보인다.

◦각종 부분별 명칭과 장비의 결합, 그리고 분해를 지도하며 보드 위에서 중심잡기, 패들링을 강습한다.

◦종합적인 시범실습과 부분적인 표본강습을 통해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8) 수상스키

◦모터보트나 혹은 수상오토바이 뒤에 견인줄을 연결하여 수상스키를 탄 사람이 견인줄을 잡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하는 스포츠로서 이를 시범실습식 교육으로 진행한다.

◦육상에서의 중심자세이동 및 방향전환, 수신호 교육

◦수상스키 탈착법, 수면에서의 기본자세 유지법

◦하프스피드에서 30m이상 주행이 가능토록 한다.

(9) 카타말란

- 카누와 카누를 나란히 연결시켜 마스트를 설치, 세일을 이용하여 전진력을 얻는 장비로 탐사코스에 적합하며 바람을 이용한 세일 조종술과 페달을 이용한 전진 방향전환의 동작을 구사할 수가 있다.
- 8-10명의 인원으로 팀웍 속에 협동심과 체력단련, 위기극복 능력 등을 배양시켜주며 원거리 항해도 용이한 종목이다.

(10) 핀수영

- 기본적으로 잠수하는데 필요한 오리발과 수경, 스노클 등의 장비만으로 수심 10m까지 잠수 가능한 교육이다.
-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장시간 물속에서 머물기 곤란하므로 오랜 시간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심폐지구력과 대담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훈련과 기술을 중점 지도한다.

(11) 세일링 요트

-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여 근해나 강가에서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해양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적인 기술과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조작방법은 윈드서핑과 비슷하다.
- 장비는 배를 비롯하여 구명조끼, 슈트, 활동에 편한 옷, 요트용 운동화, 장갑, 또한 몸놀림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한 ‘하네스’ 라고 하는 안전띠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계발활동

가. 계발활동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은 지·덕·체·기·예의 모든 부문에서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훌륭한 사회인, 행복한 개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조화로운 인간 교육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교과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머지 그 내용의 편성이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 안정된 정서, 건전한 도덕성 함양까지 돌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교육부, 200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발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교과에서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습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나아가 학습의욕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계발활동은 소질과 적성의 계발 및 신장, 창의적 표현과 적용능력,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여가 선용과 심신의 건강, 풍부한 정서 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나. 계발활동의 개념

계발활동은 서로 같은 취미나 적성, 그리고 각종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게 하려는 의도로 설정된 영역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에서 클럽활동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클럽활동이 학년이나 학급에 구애됨이 없이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활동이었다면, 계발활동은 사회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교육부, 2001).

다. 계발활동의 교육적 의의

(1) 전인 교육의 내실화

학교 교육은 지·덕·체·기·예의 모든 부문에서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훌륭한 사회인, 행복한 개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조화로운 인간 교육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교육부, 2001). 더구나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교과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머지 그 내용의 편성이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이 건강, 안정된 정서, 건전한 도덕성

함양까지 돌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계발활동의 역할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교과나 학급의 틀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구성원들과 더불어 관심과 취미가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함은 물론, 건강을 증진시켜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개성의 신장 및 자아 정체감 확립

개성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개개의 특성을 말한다. 교육에서 ‘개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개인의 신체를 기초로 하고 성격을 중핵으로 하여 지적 능력, 운동 기능, 행동 양식, 기호의 경향 등이 상호 관련, 종합된 독자적인 특성을 뜻한다.

개성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사회적 소산이며 교육에 의해 북돋워진다.

개성의 신장을 위한 교육적 조건으로는,

- 다면적이고 풍요로운 환경
- 개성의 싹을 발견하고 길러 주는 애정과 지도
-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교육부,2001).

자아 정체감은 사춘기와 청년기에 형성되며, 정상적인 발달을 하면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고,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미를 가져오게 된다.

자아 정체감이란, 자신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아 정체감 확립은 적응 활동 영역에서 주요 활동 내용이지만, 계발활동에서도 공통된 흥미, 관심, 소질,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부서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적극적인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아 정체감 확립에 조력할 수 있다.

(3) 민주적 협동 정신의 육성

계발활동은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관심을 존중하고 개성을 풍요하게 신장시킨다. 또, 계발활동은 집단 활동으로 전개되며,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적 작업이 행해지는 생활의 장이 된다.

학년이든 학급이든 학교 내의 집단은 대개 학생에게 ‘주어진 집단’이지 ‘학생 스스로 형성한 집단’이 아니다. 주어진 집단 속에서 개인의 역할은 대개 제약된 것이며, 피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계발활동은 주어진 학년이나 학급의 테두리를 벗어나 학생이 자유의사로 선택한 부서에서 자신이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또, 부서 내의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동하는 생활 자세는 민주 시민 교육의 바탕이 된다. 흥미, 취미를 같이 하는 학생들이 여러 학급, 학년에서 모이고 보면, 이제까지 접촉을 가질 수 없었던 여러 인격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가 생기며, 이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민주적 생활을 배우는 첫걸음이 된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 자신이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남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수행하여 집단 전체의 명예와 이익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협동 정신을 육성하고, 아울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평생 학습의 습관 형성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 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그 생산과 소멸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학교 교육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학교도 단순한 교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문과 기술의 내용을 획득하는 지적 과정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외적인 동기보다는 스스로의 학습 동기에 의해 정보를 수집 고정 개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창의성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 과제이다. 계발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분석하며 탐색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며, 그러한 활동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 다차원적인 학습 전략이다. 이러한 학습 전략은 교과목 중심의 학문 체계에 의한 지식의 전수와 주입이 주류를 이루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오늘날의 학교 교육 체계에서는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과와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계발활동의 역할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각자의 관심, 취미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 학습 체험에서 얻어지는 탐구 능력, 집단적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의 희열 등을 현재의 교과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얻게 한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중요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효과를 얻게 한다. 계발활동은 이러한 뜻에서 평생학습의 습관을 형성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신기술과 지식 창출 능력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좌우하게 된다. 다양한 능력의 계발과 창의력의 신장은 학습자의 소질과 능력, 적성 등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계발활동은 제약을 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과 발표의 기회를 통하여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런데 계발활동에서는 학습 평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하나만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발표의 기회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6) 여가 활용의 생활 태도 형성

계발활동은 공통된 흥미, 관심이나 소질 또는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취미나 교양 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해 가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육성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과 생산 설비의 기계화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함에 따라 생활에 여유가 많아졌다. 그 여유 시간을 보람되게 이용하는 방법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가 교육은 교과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자치활동이나 행사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등 특별활동을 통해서 실시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율성이 강한 계발활동은 자신의

소질, 적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

여유 있는 시간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취미와 교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기 생활을 충실하게 키워 갈 수 있는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계발활동의 의도된 목표이며, 동시에 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 계발활동 부서

다음은 해운대교육청 산하 중학교 3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발활동의 부서명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중학교 - 전통예절반, 컴퓨터반, 테니스반, 도서반, 사회적응반, 과학조립반, 신문반, 요가반, 생활감상반, 발명연구반, 봉사반, 요리반, 스케이트반, 사진반, 등산반, 요가반, 축구반, 문화체험반, 디카사진반, 볼링반, 스포츠댄스반, 비즈공예반, 탁구반, 영화팝송반

B중학교 - 골프반, 과학탐구반, 기독교반, 다도반, 도서반, 등산반, 디카반, 문예반, 문화탐구반, 바둑반, 발명반, 생활법률반, 비즈공예반, 스케이트반, 스쿼시반, 요리반, 인터넷 연구반, 자원봉사반, 전자조립반, 전통문화반, 탁구반, 테니스반

C중학교 - 등산반, 테니스반, 탁구반, 보드게임반, 스쿼시반, 무용반, 종이접기반, 골프반, 요가반, 구슬공예반, 요리반, 포켓볼반, 제과제빵반, 수화반, 문화체험반, 하모니카반, 축구반, 디카반, 방송반, 당구반, 동요작곡반, 사물놀이반, 독서논술반, 종이공예반, 비즈공예반, 재즈댄스반, 가요댄스반, 수학반, 십자수반, 한자능력검정반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지역의 중학교 교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편의표집(Convenient sampling)을 이용하여 해운대교육청 산하 일부 중학교 교사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운대교육청 산하 중학교 중 10개 학교를 편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40부를 배포하여 총 400부 중 34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일부 누락된 2명의 표본은 제외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중학교의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양스포츠가 ‘필요없다’ 라고 응답한 4명의 표본을 분석 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33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수 준	명	%
성 별	남자	127	37.6
	여자	211	62.4
연 령	20 - 29세	12	3.6
	30 - 39세	93	27.5
	40 - 49세	165	48.8
	50 - 59세	65	19.2
	60세 이상	3	.9
	05년 이하	14	4.1
교직경력	06 - 10년	46	13.6
	11 - 15년	56	16.6
	16 - 20년	119	35.2
	21년 이상	103	30.5

2.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했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직경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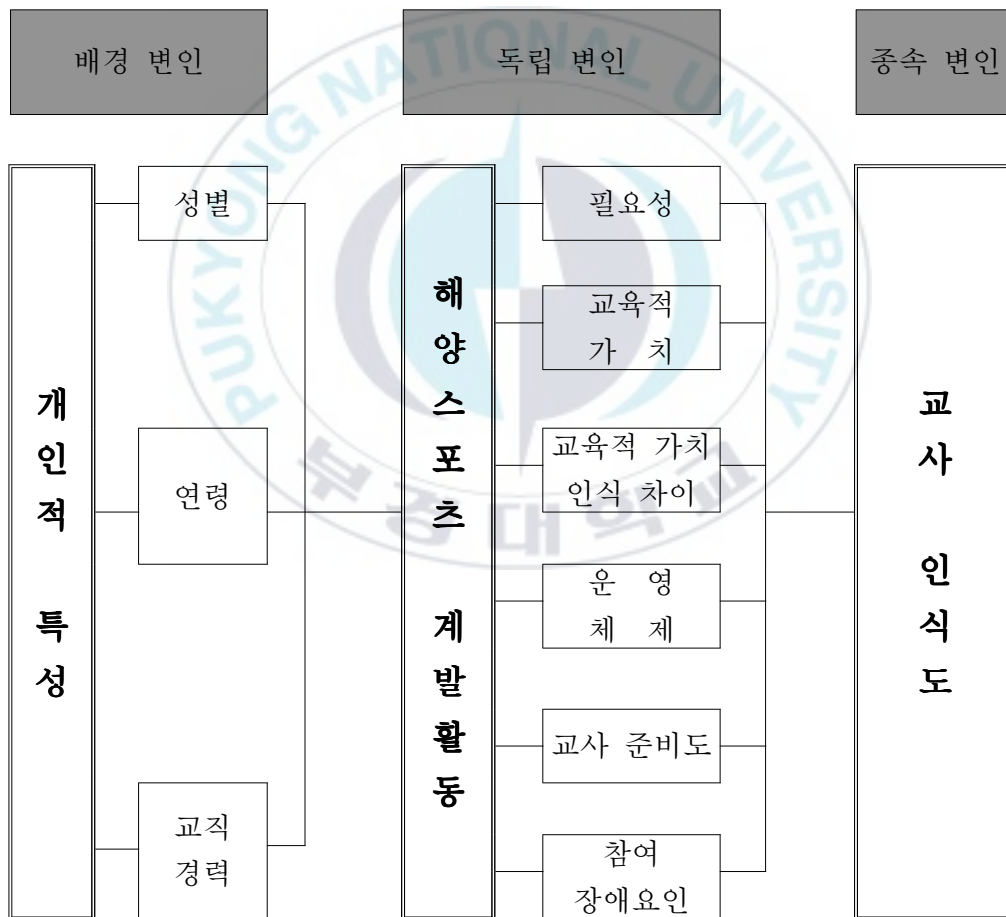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변인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개발활동에 관한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해양스포츠 개발활동에 관한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및 부산시교육청 개발활동 담당장학사로부터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자체 개발하였다.

자체 개발한 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구성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항 목	변 인	문항수
필요성	찬·반 여부	1
교육적 가치	적성개발, 창의성, 협동심, 인간관계 여가선용, 심신의 건강, 정서 발달	7
운영체제	시간운영, 참가비용, 참가인원, 지도자	4
교사 준비도	참여의향, 자격증 소지 자격증 취득, 연수 참여	4
참여 장애요인	안전사고, 참가비용 시설, 프로그램, 계절 및 날씨	5
교사 배경 변인	성별, 연령, 교직경력	3

나.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100명의 사전조사 중 유효표본으로 100부가 이용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3.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계수

문항	요인 1	요인 2	신뢰도 계수
교육적 가치 1	.832	.109	.887
교육적 가치 2	.694	-5.7E-02	
교육적 가치 3	.821	-9.0E-02	
교육적 가치 4	.830	7.948E-02	
교육적 가치 5	.720	2.205E-02	
교육적 가치 6	.808	.117	
교육적 가치 7	.732	1.364E-02	
참여 장애요인 1	4.860E-02	.686	.645
참여 장애요인 2	-.178	.577	
참여 장애요인 3	.156	.710	
참여 장애요인 4	4.677E-02	.681	
참여 장애요인 5	3.329E-02	.566	

4. 조사 절차

설문지 조사는 본 연구자가 표집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시 유의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질문내용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5. 자료 처리

수집된 표본 중 유효표본으로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SPSS Versio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설정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문제 가, 나, 라, 마, 바. → 빈도분석

문제 다. → T-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IV. 결과 및 논의

1. 결과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그 필요성을 제고하고 차후 해양스포츠 계발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

부산지역 중학교의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양스포츠가 ‘필요있다’ 라고 응답한 교사가 33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없다’ 라고 응답한 교사는 4명에 불과하다.

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7가지 하위요인인 적성계발, 창의성 발달, 협동심 발달,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여가 선용, 심신의 건강, 정서 발달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적성계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의 적성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육적 가치 1 : 적성계발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5	1.5
보통이다	48	14.2
그렇다	174	51.5
매우 그렇다	111	32.8

(2) 창의성 발달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적 가치 2 : 창의성 발달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49	14.5
보통이다	127	37.6
그렇다	136	40.2
매우 그렇다	26	7.7

(3) 협동심 발달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의 협동심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교육적 가치 3 : 협동심 발달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26	7.7
보통이다	76	22.5
그렇다	156	46.2
매우 그렇다	80	23.7

(4) 인간관계 형성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의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교육적 가치 4 : 인간관계 형성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13	3.8
보통이다	72	21.3
그렇다	176	52.1
매우 그렇다	77	22.8

(5) 여가 선택

‘해양스포츠 개발활동이 학생의 여가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교육적 가치 5 : 여가 선택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6	1.8
보통이다	39	11.5
그렇다	172	50.9
매우 그렇다	121	35.8

(6) 심신의 건강

‘해양스포츠 개발활동이 학생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육적 가치 6 : 심신의 건강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3	.9
보통이다	39	11.5
그렇다	169	50.0
매우 그렇다	127	37.6

(7) 정서 발달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교육적 가치 7 : 정서 발달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2	.6
아니다	5	1.5
보통이다	50	14.8
그렇다	184	54.4
매우 그렇다	97	28.7

다. 교사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

교사들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

<표 11>은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T-test결과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 성별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T-test)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적성계발	남자	4.142	.698	.706	.401
	여자	4.166	.721		
창의성 발달	남자	3.378	.825	.065	.799
	여자	3.431	.833		
협동심 발달	남자	3.795	.866	.026	.873
	여자	3.895	.866		
인간관계 형성	남자	3.976	.791	.035	.851
	여자	3.914	.757		
여가 선용	남자	4.228	.725	.914	.340
	여자	4.194	.700		
심신의 건강	남자	4.165	.763	1.936	.165
	여자	4.289	.630		
정서 발달	남자	4.070	.736	.413	.521
	여자	4.104	.735		

(2) 연령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

<표 12>은 교사들의 연령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연령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12. 연령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일원변량분석)

요인	F	p
적성계발	.908	.460
창의성 발달	1.474	.210
협동심 발달	.328	.859
인간관계 형성	.751	.558
여가 선용	1.254	.228
심신의 건강	.843	.449
정서 발달	.625	.645

(3)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

<표 13>은 교사들의 교직경력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교직경력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13.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일원변량분석)

요인	F	p
적성계발	.993	.411
창의성 발달	.591	.669
협동심 발달	.612	.654
인간관계 형성	.443	.778
여가 선용	1.448	.218
심신의 건강	.741	.565
정서 발달	.607	.658

라. 운영체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하위요인인 시간운영, 참가비용, 참가인원, 지도자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운영

<표 14>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간운영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간운영에 관하여 ‘4주마다 4시간씩’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학 중 집중학습’, ‘2주마다 2시간씩’, ‘매주 1시간씩’, ‘3주마다 3시간씩’의 순이었다.

표. 14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간운영

요인	명	%
매주 1시간	31	9.2
2주 2시간	37	10.9
3주 3시간	15	4.4
4주 4시간	178	52.7
방학 집중	77	22.8

(2) 참가비용

<표 15>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비용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비용에 관하여 ‘1시간 수업료 2,500원’ 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0원’, ‘2,000원’, ‘1,500원’, ‘1,000원’의 순이었다.

표. 15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비용

요인	명	%
1,000원	26	7.7
1,500원	37	10.9
2,000원	71	21.0
2,500원	112	33.1
3,000원	92	27.2

(3) 참가인원

<표 16>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인원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인원에 관하여 ‘한 학년 당 20명’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명’, ‘10명’, ‘40명’, ‘50명’의 순이었다.

표. 16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가인원

요인	명	%
10명	53	15.7
20명	130	38.5
30명	98	29.0
40명	42	12.4
50명	15	4.4

(4) 지도자

<표 17>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자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자에 관하여 ‘특기를 가진 교사와 전문강사의 공동지도’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강사’, ‘일반교사-전문강사’, ‘특기교사’, ‘일반교사’의 순이었다.

표. 17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자

요인	명	%
일반교사	14	4.1
특기교사	33	9.8
전문강사	101	29.9
일반교사-전문강사	79	23.4
특기교사-전문강사	111	32.8

마. 교사 준비도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사 준비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하위요인인 참여의향, 자격증 보유, 자격증 취득의향, 연수 참여의향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사 참여의향

<표 18>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교사로 참여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교사로 참여할 의향이 ‘없다’ 라는 교사가 63.9%로 ‘있다’ 의 36.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지도교사로 참여의향

요인	명	%
있다	122	35.5
없다	216	62.8

(2) 자격증 보유

<표 19>은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보유유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이 ‘없다’ 라는 교사가 94.7%로 ‘있다’ 의 5.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보유유무

요인	명	%
있다	18	5.3
없다	320	94.7

(3) 자격증 취득 의향

<표 20>은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없다’ 라는 교사는 70.4%로 ‘있다’ 의 29.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의향

요인	명	%
있다	100	29.6
없다	268	70.4

(4) 연수 참여의향

<표 21>은 해양스포츠 지도자 연수 참여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해양스포츠 지도자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는 교사가 54.7%로 ‘있다’의 45.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 해양스포츠 지도자 연수 참여의향

요인	명	%
있다	153	45.3
없다	185	54.7

바. 참여 장애요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하위요인인 안전사고,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 지역사회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계절 및 날씨의 영향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참여 장애요인1 : 안전사고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11	3.3
보통이다	74	21.9
그렇다	159	47.0
매우 그렇다	94	27.8

(2) 참가비용

‘학생들이 참가비용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보통이다’ 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렇다’, ‘아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3>와 같다.

표 23. 참여 장애요인2 : 참가비용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3	.9
아니다	59	17.5
보통이다	151	44.7
그렇다	107	31.7
매우 그렇다	18	5.3

(3) 지역사회시설의 부족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참여 장애요인3 : 지역사회시설의 부족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1	.3
아니다	22	6.5
보통이다	119	35.2
그렇다	150	44.4
매우 그렇다	46	13.6

(4) 프로그램의 부족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참여 장애요인4 : 프로그램의 부족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15	4.4
보통이다	102	30.2
그렇다	174	51.5
매우 그렇다	47	13.9

(5) 계절 및 날씨의 영향

‘계절 및 날씨의 영향으로 운영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6>와 같다.

표 26. 참여 장애요인5 : 계절 및 날씨의 영향

요인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16	4.7
보통이다	91	26.9
그렇다	181	53.6
매우 그렇다	50	14.8

2. 논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그 필요성을 제고하고 차후 해양스포츠 계발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

대부분의 교사들(98.3%)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현장에서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영역이 넓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양스포츠 관련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72%), 중요성(70%)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박하정(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식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7가지 하위요인인 적성계발, 창의성 발달, 협동심 발달,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여가 선용, 심신의 건강, 정서 발달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모두 최빈값이 ‘그렇다’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성 발달을 제외한 6가지 요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교육적으로 가치롭게 인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가치의 하위요인 중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종성(2003), 이기태(2005), 지삼업(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소질계발에 도움이 되며(72.6%),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60.3%)는 정규윤(2002)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다. 배경적 변인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의 차이

성별, 연령,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적 가치 인식 차이는 각각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사들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교육적으로 가치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의 비공식집단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교육적으로 가치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 해양스포츠 계발활동 운영체제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운영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운영은 ‘4주마다 4시간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학중 집중학습’, ‘2주마다 2시간씩’, ‘매주

1시간씩’, ‘3주마다 3시간씩’의 순이었다. 참가비용은 ‘한 시간 수업 기준 2,500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0원’, ‘2,000원’, ‘1,500원’, ‘1,000원’의 순이었다. 참가인원은 ‘한 학년 기준 2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명’, ‘10명’, ‘40명’, ‘50명’의 순이었다. 지도자는 ‘특기를 가진 교사와 전문강사의 공동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강사’, ‘일반교사와 전문강사’, ‘특기교사’, ‘일반교사’의 순이었다.

시간운영에 있어서 시간통합에 의한 4주마다 4시간씩의 수업운영은 전 일제 수업운영을 선호(84.4%)하는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정규윤(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스포츠 활동이 특수한 장소를 필요로 함으로 인하여 그 장소로의 이동소요시간을 최소화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참가비용 및 참가인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른 여러 계발활동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인원에 대한 결과는 10~20명이 적합(61.7%)하다고 한 교사인식에 관한 이영숙(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지도자에 있어서는 교사와 전문가가 상호보완적(56.3%)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정규윤(2002)의 결과 및 교사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지도(42.9%)해야 한다는 이영숙(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단지 이 연구에서는 특기를 가진 교사와 전문강사의 공동지도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스포츠 활동이 갖는 전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사 준비도

교사들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준비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5.2%)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 교사(29.1%)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지도교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교사(35.5%)의 비율도 '없다'라는 교사(62.8%)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위한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교사(44.5%)의 비율도 '없다'라는 교사(53.8%)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사 준비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육교사의 90%가 해양스포츠 종목에 관한 자격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박하정(200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을 위해서는 준비가 소홀한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최종집행자는 교사이므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학교현장에서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은 교사들에게 해양스포츠에 대한 많은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

안전사고는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참가비용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렇다’, ‘아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지역사회시설의 부족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프로그램 부족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하위요인인 안전사고,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 지역사회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계절 및 날씨의 영향 중에서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 4요인은 모두 최빈값이 ‘그렇다’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참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 4요인을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설부족에 대해서는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 중 시설부족(61.1%)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규윤(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해서는 체육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으로 프로그램 부족(74.0%)을 꼽은 윤재현(2003)의 결과와 유사하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학교현장에 보급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참여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개선 및 대

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선 및 대처방안이란 실행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함으로써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주요한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해양스포츠 계발활동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청 산하 일부 중학교 교사 338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우선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T-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의 배경적 변인에 따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운영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운영은 ‘4주마다 4시간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학중 집중학습’, ‘2주마다 2시간씩’, ‘매주 1시간씩’, ‘3주마다 3시간씩’의 순(順)이었다. 참가비용은 ‘한 시간 수업기준 2,500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원’, ‘2,00원’, ‘1,500원’, ‘1,000원’의 순이었다. 참가인원은 ‘한 학

년 기준 20명'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명' , '10명' , '40명' , '50명' 의 순이었다. 지도자는 '특기를 가진 교사와 전문강사의 공동지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강사' , '일반교사와 전문강사' , '특기교사' , '일반교사' 의 순이었다.

다섯째, 교사들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준비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5.3%)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 교사(29.6%)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지도교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라는 교사(36.1%)의 비율도 '없다' 라는 교사(63.9%)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위한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라는 교사(45.3%)의 비율도 '없다' 라는 교사(54.7%)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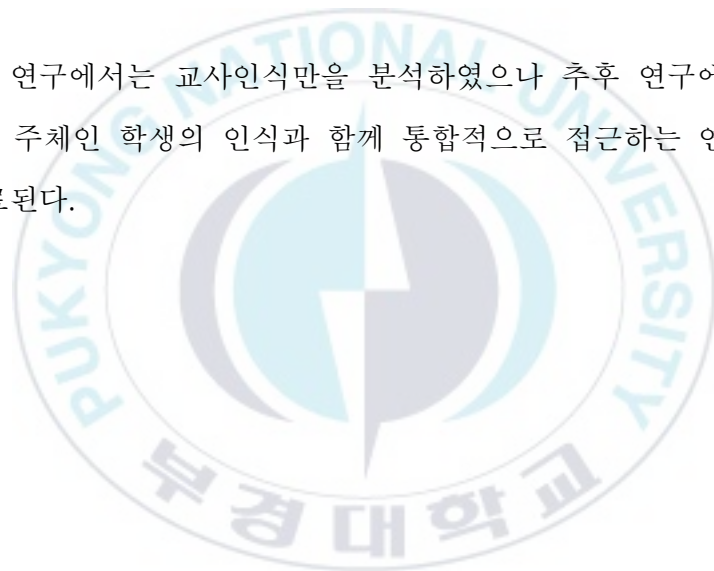
여섯째,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장애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의 순이었다. 참가비용은 '보통이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그렇다' , '매우 아니다' 의 순이었다. 지역사회시설의 부족은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의 순이었다. 프로그램 부족은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의 순이었다.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은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의 순이었다.

2.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교사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지향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해운대 교육청 산하의 중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교사인식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의 인식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종성(2003). **중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참여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54~55.
- 교육부(1997). **특별활동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3~4, 5~7.
- 교육부(1997). **제 7차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7, 31~32.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특별활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74~176, 186~190.
- 교육부(2001). **특별활동(계발활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기수(2000). **중등학교 클럽활동 운영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62~63.
- 김옥소(1997). **중학교 클럽활동 운영 방식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69~71.
- 류연수(2002). **지역특수성에 적합한 초등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 (I)**. 한국 초등교육과정연구회.
- 박준상(1994). **중학교 클럽활동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58~59.
- 박하정(2003). **체육교사의 해양스포츠 교육 실태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32.
- 서수옥(2001). **중학교 클럽활동의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홍주(1997). **해양스포츠와 해양력**. 해양학술 세미나 발표논문집.
- 윤병재(1990). **클럽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53~59.
- 윤재현(2003). **중학교 계발활동 운영 실태 조사:체육활동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62~63.
- 윤정일 외 (2006). **신교육의 이해**. 서울:학지사
- 윤현희(1997). **클럽활동 유형별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76~77.
- 이기태(2005).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참여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50~51.
- 이순길(1996). **중·고등학교의 클럽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54~56.
- 이어령(2007). 무균질 기업은 생존 못한다. **이코노미스트(886호)**. 20~22.
- 이영숙(2007). **초등학교 계발활동 교육과정정책과 실제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72~73.
- 이재숙(1996). **중·고등학교 특별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62~63.
- 정규운(2002). **중학교 계발활동 운영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65~66.
- 지삼엽(1996). **내일의 파도를 향하여**. 해원출판사

- 지삼엽(2003). **해양스포츠 체험교육론**. 해원출판사. 44~53, 466~467.
- 지삼엽(2004). **부산지역 해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요인 분석**.
부산미래 연구소.
- 지삼엽(2006).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3). 329~330.
- 지삼엽(2006). **해양스포츠 자원론**. 대경북스.
- 최의창(2005). **체육교육탐구**. 태근문화사. 432~434.



<부 록>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설문지

존경하는 선생님께.

오늘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께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직접 찾아뵙는 것이 예의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면상으로 부탁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해양스포츠를 활용한 계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연구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계발활동 교육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문성준

부산지역의 계발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양스포츠가 필요(있다 · 없다).

※ ‘있다’의 경우 각 문항의 질문에 V표기로 응해주시고, ‘없다’의 경우 가장 뒷부분의 성별, 연령, 교직경력 사항에만 표기하세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물음들입니다.

<교육적 가치>

1. 학생의 적성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학생의 협동심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학생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학생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학생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학생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운영체제>

1. 시간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주 1시간씩 ②2주마다 2시간씩 ③3주마다 3시간씩
④4주마다 4시간씩 ⑤방학중 집중학습

2. 참가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수업 기준)

- ①1000원 ②1500원 ③2000원 ④2500원 ⑤3000원

3. 참가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년 기준)

- ①10명 ②20명 ③30명 ④40명 ⑤50명

4. 지도는 누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일반교사
②특기를 가진 교사
③전문강사
④일반교사 + 전문강사
⑤특기를 가진 교사 + 전문강사

<교사 준비도>

1. 지도교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2.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3.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4. 해양스포츠 지도자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참여 장애요인>

1.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학생들이 참가비용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시설이 부족하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계절 및 날씨의 영향으로 운영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성별

남() 여()

▶연령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 이상

▶교직경력

①5년 이하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년 이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